이스라엘, 가자 남부서 지상군 대부분 철수…전술? 美 압력?

1개 여단만 잔류…군 "전투 완료에 따른 조처, 美 압력 때문 아냐"

"알시파 병원 작전 계기 '상시 주둔→필요시 투입'으로 생각 변경"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전·휴전 협상과 관련 있는지는 불분명

하마스와 6개월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상당수를 철수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간밤에 1개 여단을 제외한 지상군 병력 대부분을 가자지구 남부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철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간 하레츠는 그동안 남부 최대도시 칸 유니스에서 작전해 온 98사단이 철수했다면서 이는 전투 임무가 완료된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의 요구 때문은 아니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라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리는 "필요할 때마다 작전을 재개하겠지만 작전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곳에 주둔할 필요는 없다"며 "98사단은 하마스의 칸 유니스 부대를 파괴했고 수천 명의 테러범을 사살했다. 할 만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칸 유니스에서 병력이 철수하면서 남부 최대도시 라파에 은신 중인 피란민이 주거지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다시 작전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하마스의 칸 유니스 여단을 궤멸시키는 첫 번째 임무에 성공했지만 인질 구출이라는 두 번째 임무는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알시파 병원 작전을 통해 가자지구 남부 전투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3개 사단을 필요시 가자지구 작전에 투입할 부대로 지정하고 이들 부대는 가자지구 분리 장벽 인근 키수핌 키부츠(집단농장)에 주둔한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도 "알시파 병원 등 가자지구 북부에서 최근 진행된 작전들과 같이 최신 정보에 근거를 둔 급습 작전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스라엘군은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98사단 철수 후 가자지구 남부에 남는 유일한 부대는 '넷자림 통로'(Netzarim Corridor)를 지키는 나할 여단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가자 주둔) 병력 축소는 휴식과 정비 차원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작전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병력 철수가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 지연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이 은신한 것으로 여겨지는 라파에서 지상전을 고집해왔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140만명에 달하는 피란민의 안전을 우려하며 이를 만류해왔다.

이번 병력 철수가 휴전 협상과 관련이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그동안 휴전과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이스라엘군 철수와 영구 휴전 논의 등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하마스 소탕과 인질 구출, 가자 지구발 안보 위협 해소 등을 전쟁 목표로 내건 이스라엘은 이런 하마스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하마스는 전날 휴전 협상에 참여할 대표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보내기로 했지만, 병력 철수와 영구 휴전 등 요구사항을 철회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도 이날 이집트에서 시작될 휴전 협상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도 "우리는 승리 일보 직전까지 왔다"며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없다"며 하마스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골퍼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에서 열린 'LIV골프 마이애미 대회' 최종 라운드에 참석해 그레그 노먼 LIV 최고경영자(CEO) 앞에서 골프 기술을 흉내 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5대 빅테크 "넘쳐나는 현금 어쩌나"

구글 980억달러·애플·아마존 등 5700억달러 보유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이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게 되면서, 이들 자금의 처리 문제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들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이기도 하다.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그리고 구글과 페이스북의 모회사들은 현재 단기 및 장기 투자로 총 5700억 달러(772조원)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규모는 S&P 500지수에서 이들 다음으로 가장 부유한 5개 비금융 기업 총보유액의 배 이상이다.

이런 현금 축적은 다른 산업처럼 높은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것 없이, 널리 사용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비롯된다.

애플과 MS,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해 영업을 통해 각각 1000억 달러(135조 5000억원) 이상의 현금을 창출했다.

거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의 경우 같은 기간 영업현금흐름이 550억 달러(74조 5000억원)를 조금 넘었을 뿐이다.

이들 빅테크는 이처럼 사업에 투입해야 할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지만 이는 또한 처리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규제 당국이 빅테크가 더 비대해지는 것을 막아 나서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아마존과 어도비, 인텔의 경우 지난해 인수 시도 사례가 급증했지만, 거래 성사에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로비 활동 등에 더 비용이 들게 됐다.

한 사례로 MS가 지난해 10월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를 마무리하는 데는 거의 2년이 걸렸다.

MS의 두 번째 큰 인수 거래로, 구인·구직 소셜 네트워크 링크트인을 2016년 6월 완전히 품기까지는 6개월 미만이 걸렸을 뿐이다.

알파벳은 온라인 마케팅 소프트웨어 기업인 허브스팟(HubSpot)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브스팟은 시장 가치가 350억 달러(47조 5000억원)에 달한다.

자회사 구글이 현재 검색 엔진과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관해 규제당국과 반독점 소송을 벌이는 만큼, 이러한 움직임은 어리석은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결국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알파벳으로서도 자신감을 얻었을 수는 있다.

구글은 최신 분기 말 현재 980억 달러(133조원)의 미투자 자금(dry powder)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배 수준이며, 애플의 645억 달러(87조원)보다 많다.

한편으로는 이들 빅테크가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투입할 방법도 적지 않다.

팩트셋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해 자사주 매입에 615억 달러(83조원), 그 전해에는 590억 달러(80조원)를 각각 지출했다.

애플도 지난해 자사주 매입에 770억 달러(104조원)를 투입했는데, 연구개발(R&D)에는 절반 이하인 300억 달러(40조 6000억원)를 지출했다. 애플은 또한 배당금으로 연간 약 150억 달러(20조 3000억원)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뉴욕 100대 레스토랑'에 한식당 7곳

NYT 선정…4위 '아토믹스' 등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선정한 '2024년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 100곳'에 한식당 7곳이 선정됐다.

NYT는 지난주 뉴욕 지역 최고의 레스토랑 순위를 발표하면서 4위에 한식당 '아토믹스'를 올렸다.

NYT는 아토믹스가 "현지에서 채취한 족제비쑥 등 새로운 식재료를 사용하고, 전통을 기반으로 한 실험을 거듭하며, 더 넓은 맥락에서 한국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적 도자기와 직물, 젓가락 등과 함께 식사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16위, 30위에는 각각 '제주 누들 바'와 '아토보이'가 올랐다.

NYT는 제주 누들 바에서 판매하는 '버섯 라면'에 대해 "파르메산 치즈 거품과 라임을 곁들인 이 음식은 그 자체로 한 끼 식사가 된다"고 평가했다. 아토보이에 대해서는 "현대 한식에 대한 비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며 훌륭한 한식 코스 요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 외 맨해튼에 위치한 '옥동식'이 40위, '윤해운대 갈비'가 52위, '오이지 미'가 77위, '마포 코리안 BBQ'가 91위를 기록하며 100위권 안에 들었다. 옥동식에서 판매하는 돼지 곰탕은 지난해 12월 NYT가 발표한 '올해 뉴욕 최고의 요리 8선'에도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도 NYT는 "옥동식을 뉴욕 정찬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요리는 '돼지 곰탕'"이라며 "그릇마다 고슬고슬한 흰 쌀밥과 아주 얇게 썬 돼지고기가 담겨 나온다"고 호평했다. /연합뉴스

수질 오염 경고…덴마크서 '피오르 장례식' 열려

덴마크에서 심각한 수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한 이색 행사가 열렸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전날 덴마크 동부 '바일레 피오르' 인근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피오르 장례식'을 치렀다.

피오르는 수만 년에 걸친 빙하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계곡으로 이곳에 바닷물이 흘러들어와 채운 지형이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으로 꼽힌다.

그린피스와 행사 참석자들은 22㎞ 길이의 바일레 피오르에 산업·농업 폐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수질이 완전히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그중에서도 축산농가에서 쓰는 비료 속 질소가 흘러든 탓에 수중 용존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수중 동식물이 거의 멸종됐다는 것이다.

이날 '장례식'에서 주최측은 오염된 바일레 피오르 물을 담은 투명한 관을 마련했다. '바일레 피오르, 이곳에 영면'이라는 글귀를 새긴 묘비도 등장했다.

/연합뉴스